

치매로 혼동하는 증상 일곱가지

치매 증후군이라고 해서 모두 치매는 아닙니다! 자칫 치매 환자로 혼동하기 쉬운 예를 알아봅시다.

정상적인 노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어느 정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신체적 기능의 상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노화의 경우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중요한 기능에 손상을 입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삶에 두드러진 장애를 받지 않는, 그저 가벼운 변화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아들, 딸의 '결혼식'을 잊는 등 중대사에 있어서 기억력 감퇴가 나타난다면 이것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시 치매 진단을 고려해야겠죠!

학습능력의 감퇴

20대가 절정기라 할 수 있는 학습능력은 나이 50세 무렵이 되면 14세 전후 소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 능력이 떨어지고, 또 60세 경엔 11세 전후의 수준으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70세가 되면 거의 10세 이하 어린이들의 학습능력 수준으로 현저하게 떨어지죠. 물론 생활의 지혜는 점점 무르 익지만 뭔가 배우고 활용하는 일은 젊었을 때처럼 원활치 못하게 됩니다. 학습능력이 마음 같지 않은 노인들, 하지만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직접 작동방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겠죠?

적응능력의 감퇴

학습능력 및 기억의 유지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심한 현대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이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기란 어려운 일이죠. 무엇보다 노

인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기억을 기준으로 현실에 적응하려 들기 때문에, 다분히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들의 몸에 밴 환경과는 한참이나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낯선 문화에 당혹해하고, 또 불편해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정서적인 불안정

고집이 세어지는 것은 늙어가면서 두드러지는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사 혼동을 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증상도 있죠. 자기가 살던 곳이 갑자기 바뀌면 더 힘들어지기도 하구요. 도시에 사는 자식 집에 왔지만 "애야, 도로 내려갈란다"라며 짐을 부지런히 꾸리기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 자신들이 혹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는지 고민하다가도 "도대체, 왜 저러시나?"라며 나중에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일 때도 생기게 됩니다.

시력, 청력의 약화

노년기에 들면 자연히 시력, 청력이 약해집니다. 잘 보지도 못하고, 듣는 것도 어설프고, 기억력도 일부 떨어지면서 어느새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친숙한 환경도 착각을 하는 때가 왕왕 생깁니다. 잘 듣지 못하는 점 때문에 곧잘 탄소리를 하기도 하죠. 노인의 귀에선 '윙~윙~'사이렌 소리가 나고 눈앞이 침침하며 잘 안 보여도 늙어서 그렇다고 무작정 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청기와 백내장 수술만으로도 생활이 매우 편해질 수가 있지만, 대개의 노인들은 이 사실조차 모

큰 채 혼자 참기만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노인성 우울증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수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신체적 기능은 떨어지고, 서서히 주위 자극에 무관심해지면서 아픈 곳도 많아지고, 그런 가운데 사람이 멍해 보이게 됩니다. 일종의 심리적 충격으로 의욕과 자신감을 잃은채 삶에 비관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죠. “죽을 때가 언제냐?”는 등 갑자기 엉뚱한 소리도 하고 행동이 많이 어려워지며 눈물을 자주 흘립니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우울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섬망 증후군

섬망 증후군이란 노인들의 갑작스런 정신 혼탁 증상을 말하는데, 흔히 치매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증상입니다. 증세는 갑작스런 정신 혼탁이 생기면서, 정서불안 상태를 보이고 주위의 사물에 대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물의 인지상태가 왜곡되면서 간헐적인 환청,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구요. 의식이 흐려져 밤중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 자기도 합니다. 또한 손 떨림이나 깜짝 놀라는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심장 맥박이 불규칙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매 증상 「7분 진단법」

치매를 정확하게 가려내는 「7분 진단법」이 있습

니다. 미국 사우스 웨스턴 버몬트 메디컬센터의 폴 솔로몬 박사가 치매 환자를 가려내는 4가지 테스트방법을 발표했는데, 진단 정확도가 90% 이상이라고 합니다. 가끔 치매인지 혼동되는 분이 주변에 있다면 이 테스트 방법을 이용해서 진단해 보세요.

첫째, 오늘이 몇 년, 몇 월, 몇 일 인지를 묻고, 시계를 보여주며 다시 몇 시, 몇 분인지 묻습니다.

둘째, 주위의 평범한 물건 16가지가 그려져 있는 그림카드를 한꺼번에 네 장씩, 네 번에 걸쳐 보여준 뒤, 그 물건의 이름을 말해보게 합니다. 그림카드는 유아용으로 나와 있는 걸 쓰면 되겠죠. 이때 기억력을 촉진시킬 말한 도움말을 줍니다.

셋째, 연필과 종이를 준 뒤 시계를 그리고, 그 속에 1부터 12까지의 숫자를 그려 넣게 합니다.

네째, 야채의 이름이나 가구의 이름 같이 특정한 종류의 이름을 1분 동안 가능한 한 많이 열거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의 경우 세월이나 시간 감각이 없고, 시계를 그럴 때도 숫자의 일부를 빼먹거나 시침과 분침을 틀리게 그려 넣는다고 합니다. 또 정상인 사람은 주위에서 힌트를 주면 16가지의 그림을 대부분 기억해 내지만, 치매환자는 아무리 쉬운 힌트를 줘도 물건을 생각해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채나 가구의 이름을 1분 동안 12개 미만으로 열거하는 경우에도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